

제 2 절

경제과학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2.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3. 우량 중소기업 판로 확대 추진
4.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5. 환경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관리
6.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구축

제2절 경제과학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1-1. 경제활동인구 및 중소기업 현황

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

2009년 말 전남의 인구는 1,934천명이며, 이중 노동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은 1,423천명으로 2008년보다 1천명(△0.07%)이 감소하였고,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3.4%로 2008년 65.4%보다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888천명으로 2008년보다 14천명(△1.6%)이 감소하였으며, 취업인구로 본 전남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28.9%, 광공업 9.6%, SOC 및 기타서비스가 61.5%로 1차 산업 종사자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산업구조 및 취업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			
2007	1,423	920	905 (100)	248 (27.4)	87 (9.6)	570 (63.0)	64.7	16 (1.7)	
2008	1,424	919	902 (100)	254 (28.2)	86 (9.5)	562 (62.3)	64.5	16 (1.8)	
2009	전남	1,423	903	888 (100)	257 (28.9)	85 (9.6)	546 (61.5)	63.4	15 (1.7)
	전국	40,316	24,063	23,229 (100)	1,231 (5.3)	3,895 (16.8)	18,103 (77.9)	59.7	834 (3.5)

()는 취업인구기준 산업구성비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자료임.



나.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증가 추세

도내 중소기업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우리 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영향이 큰 부동산 임대업과 소형 유통업 등의 감소로 전체 중소기업체 수는 감소하고 종업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체는 2008년 9,972개로 도내 전체 제조업체 9,991개 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중소기업체 증가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업체, 인원	구성비	업체, 인원	구성비
전체 제조업	업체 수	10,236	100	9,991	100
	근로자수	88,672	100	90,459	100
중소 제조업	업체 수	10,219	99.8	9,972	99.8
	근로자수	66,783	75.3	67,290	74.4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8.12.31 기준 자료임.

(2) 중소기업 규모별 추이

우리 도의 전체 중소기업체중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6%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및 경영수준이 낮아 단순 1차가공 위주의 영세한 가내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4>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7년		2008년	
	사업체수	구 성 비	사업체수	구 성 비
계	10,236	100	9,991	100
중 기 업	203	2.0	216	2.6
소 기 업	10,016	97.8	9,756	97.6

(3) 중소기업 업종별 추이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농수산업 위주의 우리 도 산업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조립금속 10.4%의 순으로 나타나 광양제철, 삼호조선,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의 협력업과 관계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계	식 료 품		금속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 타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2007	10,236	4,924	48.1	1,078	10.5	640	6.2	3,594	35.1
2008	9,991	4,880	48.9	1,042	10.4	429	6.3	3,440	34.4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송기옥

1-2.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지원체제 확립

가. 중소기업육성 중점 추진사항

우리 도의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9인 이하의 소기업이 97.6%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8년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이 판로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도 정책자금 1,560억원을 융자지원(전년보다 410억원 증액)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년보다 2.2배 많은 2,075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하는 한편 별도로 광주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를 8회 개최하여 47건의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한편 종전 '1사1담당제'를 '기업후견인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4. 30일 도내 각급기관·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라남도 기업사랑협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범도민 기업사랑실천 운동 발대식'을 갖고 '기업사랑 선언문'을 채택, '내고장 상품애용 운동전개', '기업친화적 지역분위기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등 범도민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했다.

나.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1)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추진

제품 불량률을 0.01%(제품 100만개 생산할 때 불량품 10개) 이하로 줄여 우리지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세부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품질경영 추진업체를 선정하여 분임조를 구성,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공정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고 품질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 품질경영 추진업체 확대 및 활성화

제품불량률 100PPM 달성이 유망한 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운동을 도내 전 업체에 확산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표 2-6> 품질경영 추진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업 체 수	427	493	514
분 임 조	2,490	2,756	2,432

2)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품질혁신 의식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분임조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는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2-7>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참 여 분 임 조	31	28	22
시 상 분 임 조	31	28	21

(2)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 추진

생산업종(제품)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 각 개별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기술경영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종 업종끼리는 제공을 기피하는 핵심정보 및 기술을 이전 받고 기업간 우위기술을 상호 융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판매 등 판로까지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 교류그룹 결성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그룹, 업체	24개 그룹 413업체	25개 그룹 421업체	25개 그룹 432업체

(3) 『으뜸장인』 선발제도 운영

우수기능을 보유하고 기업생산성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 중 『으뜸장인』을 선발 시상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94. 1. 10)』를 제정, 매년 5명씩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관내 동일 공장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현장근로자 및 지도사원으로 품질분임조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후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특전은 으뜸장인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사내 우대계획에 의한 인사고과 반영, 해외연수 등의 특전도 부여된다.

다. 중소기업 「기업후견인제」 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군 간부공무원이 1개 회사씩 맡아 기업경영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

여 전담 해결해 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인 「기업후견인제」는 도 및 시군의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참여로 1,107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매분기별 1일 현장체험과 주요 시책안내 활동, 담당 업체 후견인 역할수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금·기술·인력·판로·공장입지 등 경영전반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데, 본 시책은 1997. 4월부터 「1사1담당제」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 「기업후견인제」로 시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애로·건의사항 1,004건을 수렴 98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2-9> 「기업후견인제」 활동 기업애로 해결 실적

(단위 : 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수렴건수	해결건수	수렴건수	해결건수	수렴건수	해결건수
1,272	1,258	1,351	1,295	1,004	985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송기옥

라.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해 타 중소기업에 귀감이 되는 선도적인 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유망 중소기업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기술·지역특화, 수출 유망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389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은 투자지원(전남농수산물투자조합), 홍보지원(홍보리플릿 제작 등), 판로지원(해외시장 개척 등), 기술지원(해외규격인증지원, 애로 기술지도 등)과 중소기업 「기업후견인제」 업체로 우선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송기욱

마.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 연도별 재원조달 및 육성기금 조성 현황

1) 지원자금별 재원조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조성하여 광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은행 협조융자금 이차보전(연 2.0%) 사업인 경영안정자금은 아래의 시중 14개 은행의 재원으로 은행과 우리 도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다.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창업활성화 등에 지원한다.

<표 2-10> 연도별 기금조성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내 역			2010 계획	계
	2007년까지	2008	2009		
계	32,000	1,900	1,900	1,900	37,700
도 비	7,000	400	400	400	8,200
시 군 비	25,000	1,500	1,500	1,500	29,500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벤처기업 등에 저리자금 지원

(2) 지원실적

2009년에는 총 1,020개 업체에 1,395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했다.

<표 2-11>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08			2009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계	1,130	812	1,034	1,560	1,020	1,395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별지원지역자금)	160	56	143	410	102	289
벤처기업육성자금 (기술유망중소기업자금)	20	16	22	30	25	24
중소유통구조개선	20	5	4	20	4	3
경영안정자금	830	613	830	1,050	675	1,017
소상공인창업자금	100	122	35	100	214	62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1-3.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신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구축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1) 중소·벤처 창업스쿨 운영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절차 및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창업스쿨을 개설하여 매년 창업에 관한 실무지식 전달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9개 과정의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1,159명이 수료하여 창업기반을 다졌다.

(2)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에게는 창업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02개업체에 28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2>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2007		2008		2009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119	782	56	143	102	289

(3)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사업

자 등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기술·마케팅 등의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11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0백만원씩 총 330백만원을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비로 차등 지원해오고 있다.

각 지원비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판로 및 마케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표 2-13>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연 도	창업보육 센 터 수	입 주 기업수	고 용 인원수	매출액 (백만원)
2007	11	138	419	21,418
2008	11	135	283	29,347
2009	11	138	366	23,201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영범·윤종권

나. 벤처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

(1) 벤처빌딩 건립·운영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고부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집적시설로서 목포시 석현·옥암·산정동 등 일대(2.95km²)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집적화 및 벤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벤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준공한 벤처지원센터에는 현재 42개 기업이 입주했고, 벤처지원센터 진입도로를 개설(L= 129m) 하였다. 벤처기업 창업보육을 위해서 1시군 1벤처 빌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 현재 5개소(화순, 영암, 장성, 곡성, 광양)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광 벤처빌딩이 추진 중에 있다.

(2)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8개 대학 24개 동아리가 참가하여 12개팀 시상과 아울러 창업할 경우 도에서 지원중인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알선, 각종 경영 및 기술지도 등 미래 벤처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벤처기업에게 2000년도부터 벤처기업육성 자금을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연리 3.0%의 저리로 지원되며, 2008년까지 89개업체에 154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 25개 업체에 2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4>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	14	18	18	19	47	22	53	16	22	25	24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송기옥, 윤중권

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우리 도에서는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재단법인 형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비 100억원과 국비 50억원 등 1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2개팀 12명의 임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2001. 7. 31 순천시 장천동(광주은행 순천지점 2층)에서 보증업무를 개시하고 2004. 4. 30 목포지점(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을 개소하였다.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여 초대 이사장으로는 문충식씨가, 제2대 이사장으로 김윤옥씨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도지사가 2004. 7. 16일자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2005. 5. 3 화순지점을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 재단은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의 한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체당 8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개시한 2001. 7. 31부터 2008년 말까지 보증실적은 14,756개 업체에 2,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보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1년 동안 14,476개 업체에 2,075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영세 제조업체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저신용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총 8,514개 업체에 7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과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영세업체들이 동 재단을 적

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표 2-15> 전남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실적

(단위 : 개, 억원)

계		2001~2006년		2007		2008		2009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29,232	4,979	5,820	1,361	2,854	620	6,082	923	14,476	2,075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영범

1-4.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이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대형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유통업계 상권 위축과 최근 대기업의 경쟁적인 유통업 참여확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신종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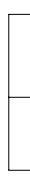
반면에 중소기업 규모 슈퍼마켓, 소규모 일반점포 등 중소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중소기업체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현대화, 정보화, 협업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원개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규칙의 지원근거에 따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체에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며,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개선,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자금 등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별 용자규모와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문상가 건립·시설개선	: 4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점포시설 개선	: 1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 1억원 이하, 1년거치 2년상환

다. 지원 방법 및 실적

도의 사업자금 지원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용자대상자를 추천받아 서류 확인을 거쳐 용자 추천 대상자를 결정 후 기금관리 은행과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용자 대상자에게 대출된다.



경제과학국 경제정책과장 배택휴, 기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1-5.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시장의 개방과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 국내 대기업의 대형마트·SSM 진출, 신업태 등장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 지원개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24개소에 총 217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은 13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장육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2-16>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비 고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계	149	155,672	58	5,746	
2001	2	7,543	-	-	
2002	7	10,583	-	-	
2003	18	16,594	4	119	
2004	22	32,196	3	132	
2005	18	8,397	2	524	
2006	16	10,305	8	350	
2007	17	15,382	16	2,082	
2008	25	32,947	12	685	
2009	24	21,725	13	1,854	

다. 지원 방법 및 실적

중소기업청의 사업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의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최종 지원이 결정되고, 우선순위 결정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의한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박병훈

1-6.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 (2) 주관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지식경제부)
- (3) 공동수행기관 : 전국 24개 ECRC 지정기관(대학, 상공회의소 등)
전라남도(순천광양상공회의소 ECRC)

나. 주요사업

- (1) e비즈니스 지역특화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운영, 무선 인터넷 활용지원 정보화 솔루션 및 인프라 지원, 정보포털 구축·운영

- (2) e비즈니스 교육 및 컨설팅

전자상거래 창업,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활용 컨설팅

(3) e비즈니스 행사 및 연구조사

교육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세미나,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전용공간 확보 활용, 컨설턴트, 실습교육장 시설 등

(4) ECRC 자립기반 마련

유료교육, e쇼핑몰 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금 확보

다. 추진실적 (순천광양상공회의소 ECRC)

(1) e 포지션(LBS)을 이용한 U-port 구축사업

광양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지능형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홍보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및 이용 편의성을 증대 하였고 물류정보 e포지션 시스템 구축(모바일 위치 찾기), 통합검색 및 업체 DB를 추가

(2)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기술(교육지원)

세미나 등 교육지원 15건(1,041명) 및 e비즈니스 도입·활용교육 8종을 추진하여 224명의 전문 인력 창출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천재정

1-7. 산업인력공급과 노사안정 추진

가.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역사회의 기능개발 보급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966. 1. 29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창립된 이래 2009년까지 총 44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격은 만14세 이상으로 학력제한이 없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되고 별도의 장려금 지급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9년도 개최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7>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개최 시기	장 소	실시 직종	참가 선수	입 상 자					사업비
				계	금	은	동	장려	
4. 8~13	순천공고 등 6	46	528	183	50	50	43	40	209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09. 9. 22~9. 28(7일간)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55개 직종에 16개 시·도 대표 2,09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전라남도는 종합 14위를 차지하였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유시영

나. 노사안정추진

(1)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 확산

우리 지역은 그 동안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06년 7건 → 2007년 7건 → 2008년 4건 → 2009년 6건)에 있으며, 노사안정에 대한 도민과 근로자, 기업인들의 공통된 인식 변화로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특히, 2009. 3. 28(토) 나주시, 영산대교 인근 영산강 둔치에서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행정기관 대표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지역노사민정협약체결 선포 및 영산강 살리기 정비사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부주관 노사상생협력 2008년 최우수지자체에 이어 2009년 우수지자체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년 연속 노사상생협력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전남이 산업평화를 지향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2) 노사상생 협력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노동단체 및 근로자 화합행사, 노사정 합동세미나 등 10개 사업을 지원·추진하였다.

<표 2-18> 노사화합 행사추진 실적

구 분	2009년	
	시 기	주 요 내 용
근로자의 날 기념식	5.1	기념식 및 간담회
고용안정 특별활동반 운영	1~12월	노사분규 예방 및 애로사항 해결
노사정 합동세미나	9. 24~25	주제발표, 특강, 분임토의 등
노사화합 선진지 해외연수	10. 23~31	선진 노사협력,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사례 벤치마킹 등
근로자 특별 순회교육	4월 중	신노사문화정착 및 생산성 향상방안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4. 24	노사 화합의 장, 등반, 근로자사기양양
노사 이벤트 행사	3. 18~27 (2기)	자유토론, 노사간 대화 등
동서지역 노사 한마음 행사	6. 26	동서 및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채택
서남권일자리창출 연대회의	10. 29	개회식, 노사화합 한마당
산업평화전남 실천결의대회	10월	산업평화 실천다짐문 낭독, 채택, 선포
중국대런시총공회간 교류사업	11. 2~5	조합원 권익을 실현하는 방식 토론 등

(3) 제5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투자유치와 고용안정을 이루어 잘사는 전남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산업평화상”을 제정, 2004년도에 제1회 시상을 한 이후 2009년에 제5회째를 맞게 되었다.

2009년도 산업평화상은 지난 11월에 시장·군수와 노동단체 등에서 4개 노동조합을 추천받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노동조합 운영 및 협조,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로는 대상에 (합)순천교통(단체), 금상에 송현중 (주)동방교통 노동조합 지부장, 은상에는 오원석, 조선내화(주)광양공장장이 동상에는 삼진물산(주)노동조합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박태준

1-8. 지방물가안정 추진

가. 소비자물가

2009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8% 상승하여 전국평균 상승률 2.8%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2009년 중반 이후 점차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9>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년평균,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남	8.3	1.1	2.5	3.4	2.0	3.1	3.5	2.7	2.1	2.1	4.8	2.8
전 국	7.5	0.8	2.3	4.1	2.7	3.6	3.6	3.0	2.2	2.2	4.7	2.8

나. 지자체관리 서비스 요금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분야별로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60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관리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자체 결정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 조정하여 물가 오름세 심리를 차단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지자체관리 서비스요금에 대한 업소별 가격정보 비교 공표 및 소비자의 자발적인 물가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道와 시군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표 2-20> 2008~2009 지자체관리 서비스요금 월별 동향

(전년동월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3.4	3.4	3.0	3.2	3.2	3.7	3.6	3.8	3.7	3.8	3.7	3.7
2009	3.4	3.4	3.0	3.2	3.2	3.7	3.6	3.8	3.7	3.8	3.7	3.7

다. 물가안정대책 추진

(1) 물가관리 추진체계 확립

1) 지방물가대책위원회(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명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안전 발생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을 참여시켜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2)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설·추석명절이나 연말연시·여름 휴가철 등 물가가 오를 기미가 있는 기간에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특별대책상황실을 道와 시군에 각기 설치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주요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물가동향 수집 기능강화

1) 유급 물가모니터제 운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가격상승시 인하유도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85명(도 6, 시군 79)을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매주 11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제출받아 이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 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2) 개인서비스 품목별·업소별 요금조사 및 공표 실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별·품목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인상품목·인상우려가 있는 품목은 매월 1회씩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시·군정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다.

3) 지자체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안정 도모

지자체관리 서비스 품목 중 9개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지자체관리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소방문 및 각종 교육·홍보 등을 활용,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하였다.

아울러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별 실정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로 업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4) 소비자단체의 자율물가감시단 운영

도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YWCA 등)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물가감시단을 운영하여 가격정보, 담합행위, 불공정행위조사 및 위반업소를 고발하고 값싼 업소 이용과 부당 인상업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율 물가 통제활동을 선도하였다.

5) 물가안정 홍보

범도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협조서한문 발송,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가두 캠페인 실시,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 물가신고(고발)업서 업소 비치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문, 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물가동향을 비롯해 업소별 가격 비교 등을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수시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경제정책담당 김기홍,
담당자 이상용

1-9.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 소비생활센터를 2007. 7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소비자단체의 상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1> 2009년 소비자고발 및 처리실적

구 분		계	행정기관	소비자보호단체
고 발	소 계	13,726	569	13,157
	품 질	2,111	82	2,029
	가 격	887	47	840
	계 량	165	21	144
	계 약	4,843	151	4,692
발	서 비 스	1,122	97	1,025
	광 고	261	19	242
	상 담	3,679	102	3,577
	기 타	658	50	608
처 리	소 계	13,726	569	13,157
	환불 및 해약반품	5,411	89	5,322
	수 리 및 교 환	1,852	107	1,745
	합 의 배 상	962	62	900
	시 정 및 권 고	257	15	242
	상 담 정 보 제 공	4,953	239	4,714
	당 국 고 발	103	0	103
	고 발 취 소	2	0	2
	기 타	165	56	109
처 리 불 가		21	1	20

나. 소비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소비생활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2> 2009년 정보제공 및 교육실적

구 분	내 용	실 적
정보제공	피해예방안내 등 홍보 리플렛 소비자교육교재 언론보도 등 정보제공실적	2종, 2,500부 9종, 10,000부 594건
소비자교육	노인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 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교육 주부 등 일반 대상 소비자교육	45회, 6,590명 58회, 5,320명 35회, 2,850명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천재정

1-10. 공공근로사업 추진

2009년에 도는 4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주민관련 전산화 등 정보화사업과 도로정비, 하천제방 보수 등 공공생산성 사업, 사회복지향상, 청소년 지도 등 공공 서비스 사업, 쓰레기 분리 처리사업 등 환경 정화사업 등에 연인원 150천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사회복지도우미, 정보화 사업 등 청년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하는 등 청년층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3> 연도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연인원

(단위 : 천명)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124	1,238	883	743	313	177	170	150	150	150	150

<표 2-24> 연도별·분야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정보화 사 업	공 생 산 성 사 업	공 공 서 비 스 지 원 사 업	환 경 정 화 사 업	기 타
계	186,953 (100)	65,053 (34.8)	102,164 (54.6)	11,401 (6.1)	1,781 (1.0)	6,554 (3.5)
2000년	84,345 (100)	46,026 (54.6)	34,326 (40.7)	2,718 (3.2)	75 (0.1)	1,200 (1.4)
2001년	32,512 (100)	3,474 (10.7)	25,878 (79.6)	1,717 (5.3)	108 (0.3)	1,335 (4.1)
2002년	23,609 (100)	3,421 (14.5)	17,184 (72.8)	1,889 (8.0)	272 (1.2)	843 (3.5)
2003년	9,961 (100)	1,893 (19.0)	6,512 (65.4)	927 (9.3)	90 (0.9)	539 (5.4)
2004년	7,312 (100)	1,798 (24.6)	3,894 (53.3)	668 (9.1)	72 (1.0)	880 (12.0)
2005년	6,327 (100)	1,630 (25.8)	3,277 (51.8)	699 (11.0)	46 (0.7)	675 (10.7)
2006년	5,677 (100)	1,578 (27.8)	2,997 (52.8)	653 (11.5)	91 (1.6)	358 (6.3)
2007년	5,528 (100)	1,768 (32.0)	2,766 (50.0)	608 (11.0)	55 (1.0)	331 (6.0)
2008년	5,202 (100)	1,650 (31.7)	2,550 (49.0)	641 (12.3)	52 (1.0)	309 (6.0)
2009년	6,480 (100)	1,815 (28.0)	2,780 (42.9)	881 (13.6)	920 (14.2)	84 (1.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그 동안 보완·개선과정을 거쳐 청년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특성을 살리는 공공생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과학국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송경일,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김래선

1-11. 희망근로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희망근로사업은 정부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선, 국도변 정비, 남도갯길 조성사업 등 68개 생산적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네마당 조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12개 친서민 사업을 2009.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다.

나. 추진상황

우리도는 사업비 695억원(국비 575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70억원)을 투입하여 1,221개 사업장에서 12,899명이 근로를 하였으며 이들에게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약 83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중 30%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였다.

우리 도는 농도임을 감안하여 농번기 때에는 양파, 마늘, 구기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1,474농가에 연인원 5,648명이 투입되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러 사업 중 타 시군의 모범이 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은 진도군 군내면에 설치한 수생식물 향아리 공원 조성과, 광양시 백운산 휴양림 정비사업, 완도 청산면 일원에 설치한 완도갯길 600리 조성이며 진도군의 경우 희망근로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도에서 중점 추진한 마을뒷산 등산로 정비는 83개소로 <표 2-25>와 같다

<표 2-25> 2009년 시·군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

시 군 명	사업장수	주요 사업내용
합 계	83	
목포시	1	유달산 공원가꾸기(편의시설 설치 등)
여수시	6	등산로 개설, 주차장 주변 정비
순천시	6	야생화 단지 조성, 코스모스 식재
나주시	9	등산로길 평탄화 및 확장 작업
광양시	3	잔디식재, 꽃나무 보식
담양군	5	토사유실지역 보수, 나무 가꾸기
곡성군	3	안내판, 운동기구 설치
구례군	2	나무 계단, 안전로프 설치
고흥군	1	팔영산 등산로 개설 및 안내판 설치
보성군	1	이정표 설치, 노퍽 확장
장흥군	12	쉼터 조성, 지압로 설치
영암군	1	노면 보수 및 건널목·쉼터 설치
무안군	2	노면·나무계단 보수
함평군	1	안내판 및 쉼터 설치, 꽃길 조성
영광군	6	안내판 및 쉼터 정비
장성군	4	가로화단 조성, 안내판 설치
완도군	15	나무계단, 운동기구, 벤치, 로프 설치
진도군	2	안내판, 운동기구, 벤치 설치
신안군	3	나무계단, 운동기구, 안내판 설치

다. 앞으로 추진방향

희망근로는 국민이 인식하는 단순취로 일자리 제공에서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제공으로, 무분별한 사업에서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생산적 사업으로, 정부주도 정형화된 사업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희망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소득 창출로 자생할 수 있도록 소기업,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송경일,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김용덕

1-12. 공공기관 행정인턴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해진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십을 운영하여 전남도청을 비롯 22개 시·군에 634명을 채용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업박람회', '청년 직업의식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 4회 개최, '행정인턴 찾아가는 Job-School' 2회 개최, 행정인턴 멘토링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을 한 결과 11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6> 시·군별 행정인턴 채용현황 및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시 군	채용인원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634	5,302,488	1,542,320	3,760,168
전라남도	104	917,511	277,780	639,731
시 군 계	530	4,384,977	1,264,540	3,120,437
목 포 시	32	241,304	60,326	180,978
여 수 시	74	507,984	159,231	348,753
순 천 시	40	285,177	71,294	213,883
나 주 시	29	217,199	56,500	160,699
광 양 시	19	211,059	52,100	158,959
담 양 군	18	162,100	46,105	115,995
곡 성 군	13	120,652	30,163	90,489
구 례 군	15	118,484	31,821	86,663
고 흥 군	27	257,094	83,473	173,621
보 성 군	19	142,589	35,647	106,942
화 순 군	15	153,557	38,389	115,168
장 흥 군	25	218,460	78,563	139,897
강 진 군	25	237,220	85,705	151,515
해 남 군	21	164,525	41,131	123,394
영 압 군	24	179,957	51,589	128,368
무 안 군	30	248,189	88,447	159,742
함 평 군	17	129,452	34,563	94,889
영 광 군	17	142,589	35,647	106,942
장 성 군	20	158,020	46,105	111,915
완 도 군	15	142,589	35,647	106,942
진 도 군	20	182,252	60,963	121,289
신 안 군	15	164,525	41,131	123,394



경제과학국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송경일,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장명희

1-13.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정책 태동 동향 등 정부 시책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 대응한 결과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도의 특성인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서비스 수요를 적극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고 집중 육성한 결과 2009년에는 5개기업 151개의 일자리를 얻어 전국 2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가. 육성배경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안정적인 고용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등을 법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첫째,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육성위원회 구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적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9. 1. 8 자 공포하였다.

또한 동 조례에 의거 전라남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첫 지원협약 체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지역 사회적기업간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원협약에 참여한 여수국가산단공장협의회는 금호석유화학 등 32개사로 구성됐으며 사회적기업은 송정인더스트리 등 사회적기업 4개소와 여수지역 자활센터 등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다.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환으로 경제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의 결연사업을 적극 유도해 온 결과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건실하게 자리를 잡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유치 T/F팀 구성·운영

SK,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계획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도내 대기업을 참여를 유도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유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대기업유치팀, 사회복지팀, 종교예술팀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덕망 있는 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창업활성화 지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전남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발굴지원단'을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익창출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서 대기업을 순방하며 맞춤형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의 사회적 기업 전환확대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 집중발굴을 통한 인증 확대, 일자리 사업 위탁단체, 자활공동체, 사회복지단체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단체를 선별, 기업화를 추진하고

대기업, 시군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연계 사회적기업 유치, 1시군 1사회적기업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도 실국당 관련분야에서 1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토록 추진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경제과학국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송경일, 일자리정책담당 박종열,
담당자 신은경

2.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2-1. 2009년 수출 현황

도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출 유망 중소기업 11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무역교류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하락 및 고유가 지속,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19.8%가 감소한 233억불을 달성하였으나, 지난 10년간 도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33.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 수출현황은 4대품목(석유화학 39.8%, 석유제품 25.2%, 선박 16.5%, 철강 11.6%)이 전체 수출량의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5개국(중국 32.6%, 라이베리아 6.4%, 일본 5.6%, 싱가포르 5.1%, 홍콩 4.3%)이 5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8.5%이다.

2010년에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300억불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통해 신흥시장(+30억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수산물식품은 수출목표 3억불 달성을 위해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해외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수출실적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구분 산업별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실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계	21,988	29,037	32.1	23,295	△19.8
공 산 품	21,859	28,892	32.1	23,133	△19.9
농 산 물	65.7	66.8	1.7	74.0	10.8
수 산 물	63.4	78.0	23.8	88.6	13.6

※ '09년 전국수출액 363,534백만불 대비 전남 수출액 비중 : 6.4%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신희

2-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가. 무역교류단 파견

무역교류단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및 거래선 발굴을 위해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마인드를 배양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실질적 수출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2-28> 무역교류단 활동 실적

연도	교류단명	기간	지역	참가업체	성과(천불)	
					상당액	계약액
2009	계	6회		248	195,789	78,936
	대만교류단	3.17~20	타이베이, 가오슝	10	8,550	8,550
	일본교류단	6.3~6	도쿄, 요코하마	13	8,173	7,173
	중국교류단	7.7~11	충칭, 광저우	8	5,680	4,392
	동남아교류단	7.19~24	호치민, 자카르타	8	4,970	3,020
	동남아교류단	8.31~9.4	싱가포르, 홍콩	9	8,200	1,929
	중동, 인도교류단	11.28~12.5	두바이, 뭄바이	13	5,760	5,760
2008	중국교류단	12.6~12	북경, 심양, 할빈	13	4,400	4,400
	계	2회		14	13,002	3,557
	중국교류단	12.14~12.20	상해, 북경, 심천	6	5,530	1,075
	동남아교류단	1.7~16(6일)	싱가포르, 말련	8	7,472	2,482
2007	계	9회		73	62,026	18,299
	중국교류단	4.8~4.15	광주, 신천, 성도	10	7,665	1,000
	일본교류단	5.20~5.24	오사카, 후쿠오카	12	6,931	2
	CIS교류단	6.7~6.16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카자흐	2	90	90
	중국교류단	7.12~7.19	대련, 청도, 상해	11	8,070	7,640
	동남아교류단	7.23~7.31	인도, 필리핀, 미얀마	7	10,915	100
	남미교류단	8.21~9.2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10,540	332
	동남아교류단	9.30~10.6	태국, 인니, 베트남	10	7,901	1,001
북미교류단	10.16~10.25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8	2,704	2,704	
	동남아교류단	12.9~12.15	대만, 말레이시아	9	7,210	5,430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종순

나.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우리 도내 수출상품(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수출업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2009년에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총 4회(단체 3회, 개별 1회) 개최하여 20백만불의 수출 상담계약을 성사시켰다.

<표 2-2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현황

연도별	상 담 회 명	기 간	상담 업체	초 청 바이어	성과(US천\$)		
					상담액	계약액	
2007	계	7회	221	78	36,894	34,340	
	농수산가공식품	2.26 ~ 2.28(3일)	45	10	4,300	4,300	
	농수산가공식품	4.17 ~ 4.19(3일)	35	11	4,965	4,965	
	에이전트·농식품	6.19 ~ 6.22(4일)	43	10	4,539	4,539	
	공 산 품	7.24 ~ 7.26(3일)	10	11	5,533	5,533	
	공 산 품	9.18 ~ 9.20(3일)	7	11	6,154	3,600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3 ~ 10.25(3일)	46	15	7,000	7,000	
	에이전트·농식품	12.11 ~ 12.12(2일)	35	10	4,403	4,403	
2008	계	7회	168	144	25,624	25,624	
	서울국제식품전	5.14 ~ 5.17(4일)	10	18	1,835	1,835	
	대형유통업체초청	6.23 ~ 6.25(3일)	17	5	-	-	
	농수산식품 바이어초청	8.26 ~ 8.28(3일)	34	9	2,980	2,980	
	한일해협연안수출상담	10. 2 ~ 10. 4(3일)	10	30	-	-	
	유기농식품 바이어초청	10. 6 ~ 10. 7(2일)	5	3	-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2 ~ 10.25(4일)	45	16	7,029	7,029	
	개별바이어초청	9. 24 ~ 12. 31	47	63	13,780	13,780	
2009	계	3회/연중	66	179	20,229	20,229	
	단체 상담	농수산식품	3.24 ~ 3.26(3일)	10	49	3,439	3,439
		농수산식품	6.23 ~ 6.25(3일)	9	57	3,427	3,427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2 ~ 10.25(4일)	14	40	8,700	8,700
	개별상담	년 중	33	33	4,663	4,663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다. 국제박람회 참가

우리 도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유명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09년도에는 두바이식품박람회 등 5회에 걸쳐 61업체의 단체박람회의 참가 지원과 26개 업체에 대한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표 2-30> 박람회 참가현황(2009)

박람회명	기 간	참가업체수	계약액 (천불)	비고
계		87	11,180	
두바이식품박람회	2. 23~ 2. 26	6	1,411	
동경식품박람회	3. 3~ 3. 6	9	1,713	
홍콩식품박람회	6. 5~ 6. 9	12	2,600	
세계한상대회	10. 27~10. 29	22	1,330	
상해식품박람회	11. 18~11. 20	12	1,954	
개별박람회참가	연 중	26	2,172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박주완

라. 전자무역활동 지원

(1) 무역포털사이트 가입비 지원

전자무역사업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출활동을 인터넷

을 활용한 방식으로서 전자 카탈로그 구축,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무역상담 및 컨설팅, 온라인 수출지원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에는 천일영업체 5개를 포함 모두 21개 업체를 국내외 유명 무역포털사이트에 등록 지원하여 수출상담액 1,602천불중 1,168천불 계약을 달성하였다.

(2) 전라남도수출정보망 운영

도내 수출업체 정보 및 우리도의 각종지원시책 등 수출관련 종합 정보망(www.jexport.net)을 2005년부터 구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관련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능동적인 행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신희

마.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해외무역교류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시 유망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도내 수출유망중소기업 26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품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로 61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출촉진에 기여하였다. 2010년도에도 고품격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수출상담 등 해외 마케팅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신희

바.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품설명서, 협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체결에 필요한 전문통역비용의 일부로서 지원한도는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50만원 이내로 2010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표 2-31> 통번역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8	2009	계	비 고
지원 업체수	5	16	21	
지원금액(백만원)	1.6	6	7.6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신희

사. 농수산물 해외 판촉 추진

우리 도내 농수산물식품의 시장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을 위해 해외대형유통마트와 연계하여 판촉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판촉을 추진하여 1,016천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특히, 미국, 캐나다 판촉에 무수동면 운반기술을 이용한 넙치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전남산 넙치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넙치 수출이 일본으로만 연간 200톤 정도가 수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무수동면 운반법을 통해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32> 해외판촉 추진현황(2009)

판촉지역	기 간	참 가 업체수	수출액 (천불)	비 고
계	5회	35	1,016	
몽골(울란바토르)	5. 7~5. 21	13	76	
미국(LA)	6. 11~6. 21	1	150	
필리핀(마닐라)	6. 29~7. 31	13	666	
호주(시드니)	09. 12. 20~10. 1. 10	7	80	
캐나다(밴쿠버)	09. 12. 18~10. 10. 4	1	44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이경석

아.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 운영

농수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의 체계적 판촉·홍보활동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을 위한 해외마케팅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남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대만, 홍콩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구매력과 신뢰성이 높은 해외바이어 19명을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로 위촉하여 5,061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명예수출 에이전트는 전남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고정

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박주완

자. 친환경 농수산물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수산물식품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특화된 해외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 초기단계의 위험부담으로 수출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새로운 수출품목·수출국 개발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가공대과, 건조전복, 울금음료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에 130천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정창모

2-3.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가.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

기업 스스로 해외마케팅 시기와 대상지역 및 추진방법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와 신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32개사가 42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여 지원액 대비 160여

배의 성과를 거뒀으며, 2010년에도 도 특화품목과 전략품목 등 성장 동력산업 위주로 맞춤형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33> 맞춤형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8	2009	계	비 고
지원 업체수	11	21	32	
수출액(천불)	15,953	25,938	41,891	
지원금액(백만원)	100	200	300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종순

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중소기업체의 제품은 우수하나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디자인 개발 능력이 열악하여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나 기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등의 부재로 디자인개발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상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다.

디자인개발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대한 포장, 제품, 시각 디자인개발이며, 참여기업과 디자인전문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며, 제품 디자인개발은 최대 1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포장 디자인개발은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디자인 결과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우수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 지원금 외에 초과 비용은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도정 시책참여, 수출전략기업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표 2-34>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지원 업체수	15	31	15
지원금액(천원)	150,000	285,500	133,108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해연

다. 수출용 시제품 개발 지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급화, 아이디어 제품의 신상품 출시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자 2008년부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수출용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첫 해인 2008년도에는 10개 업체에 대해 총 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시제품이 해외시장에 출시되어 총 708백만원의 수출을 실현하였고, 2009년에는 9개 업체에 대해 68백만원을 지원하여 187백만원의 수출상담(MOU)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도에도 수출용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업체별 총 소요 비용의 70% 이내 지원하며, 또한 시제품 개발물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후 공산품 분야는 10~15백만원 한도까지, 농식품 분야는 6~1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해연

라. 무역전문교육 운영

도내 중소수출업체는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무역업체를 통한 대행수출에 의존함으로써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2001년부터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본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바이어와 직거래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력수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5년에는 85명, 2006년 58명, 2007년 107명, 2008년 134명, 2009년에는 152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영문서식 작성, 환리스크 관리, 바이어 발굴, 마케팅전략, 분쟁해결 처리절차·중재 방법 등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강의하여 중소수출업체로부터 매우 실용성 있는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2010년도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전자무역과 수출보험제도 활용방안 등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실무학교를 2회(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갑주

마. 수출보험료 지원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수출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재 경제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총 지원보험료를 2008년보다 64%가 증액된 19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당 지원규모도 연간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도내 소재한 농수산물 수출 대행업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표 2-35> 연도별 수출보험료 지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지원업체	66	59	91
지원액(백만원)	130	118	194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신희

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농가(업체)의 수출촉진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근거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등에 준하고 있다.

수출물류비의 연도별 세부적인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 '02~'04년 27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모종류(1)
- '05~'07년 28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모종류(1), 밤
- '08년 29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모종류(1), 밤, 김치류
- '09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쌀(1), 기타(3)

<표 2-36> 최근 5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구 분 \ 년도별	'05	'06	'07	'08	'09
지원액 (백만원)	2,075	2,103	2,441	2,185	2,640
지원율(%)	8% (농6,업2)	8% (농6,업2)	8% (농6,업2)	8% (농6,업2)	8.40% (농6,업2)
분담율(%)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품 목	28개 품목	28개 품목	28개 품목	29개 품목	30개 품목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2-4.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과 기술력 향상으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토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각 국가는 자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기술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불법 유통시는 과태료, 벌금 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인증획득이 어려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도내 친환경농

산물 사용업체, 업체규모, 수출액, 기술력, 도정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표 2-37>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지원 실적

구 분	2008		2009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지원현황(개)	5	15	6	11
지원금액(천원)	42,700		43,600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해연

나. 국제표준시스템 인증획득 지원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국제적 품질보증 시스템이다.

우리 도에서는 정보 및 자체 기술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에게 국제 규격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지원하여 품질에 대한 대외공신력 확보로 신규시장 개척 및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사내 관리업무의 체계화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매년 신청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표 2-38> ISO 품질경영인증 획득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지원 업체수	10	16	15	15
지원금액(천원)	30,000	30,000	30,000	30,000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해연

다.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지원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기농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대상국가 식품규격에 맞는 유기농 인증이 필요하며, 해외수출기반확충을 위해 일본JSA, 미국USDA 등 해외 유기농 규격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유기농 규격인증지원을 통해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국의 기준에 부응한 인증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대일, 대미 등 안정적인 수출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7업체(8품목)에 인증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5업체(5품목)에 해외 유기농 규격인증을 지원하였다.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정창모

3. 우량 중소기업 판로 확대 추진

3-1.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가. 서울시 도봉구 「창동 전시판매장」 운영

서울시와 우호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하나로 마트」 내에 약 60평 규모의 공간을 무료로 임대 받아, 전라남도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실적 및 성과

전남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대표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21업체 31품목을 비롯 총 39업체 58개 품목을 전시·판매하여 연간 83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도권지역 판매망 확보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9>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07년까지	'08년	'09년
계	4,152,676	2,253,433	1,005,876	893,367
남도미향	722,266	347,355	192,606	182,305
일반업체	3,430,410	1,906,078	813,270	711,062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종순

3-2. 공예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우리지역의 남도미를 살린 우수한 전통공예산업을 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공예종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예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우수공예품 기술지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공예대전과 도 예선대회에 우수한 제품과 판매에 유리한 제품이 출품되도록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기술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공예업종사자로 공예대전 출품예정자와 신제품 개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도하고 있다.

2009년에는 10명의 기술위원이 13업체를 방문하여 작품명, 색채, 디자인 개발, 제작기법 등에 대해 아이디어 제공과 작품제작 노하우를 지도 전수하였다.

<표 2-40>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지원업체수	12	12	13
사업비(천원)	6,000	9,000	9,000

나. 전남 및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새로운 공예제품 개발과 아이디어 제품 발굴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공예품 대전과 전국공예품 대전 참가유도를 위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남공예대전을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공동개최 하였는데 공예대전에 60점이 출품되어 25점이 입상하였다.

또한 전남 공예대전에 입상한 25점을 제39회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장려상 2점 등 총 16점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다. 남도공예문화축제

공예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넓히고 잠재 수요자를 창출하여 신상품 개발유도와 판매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남도공예문화축제를 전남공예조합과 개최하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올해는 진도 명량대첩 행사와 공동개최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행사기간 중 공예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공예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유익한 한마당이 되었다.

도내 20개 공예업체가 참가하여 전시판매, 제작시연, 체험 등을 통해 100백만원의 판매실적기록과 공예문화가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라.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

영호남의 공예문화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우호증진을 다지고 우수공예품 판매촉진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등 8개 시도가 매년 순번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울산시에서 8개 시도 공예인들이 참가하여 시도별 공예품을 선보이며 상호 우의를 다졌다.

우리도는 18개업체가 참여하여 24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0년도 개최지로 전라남도를 결정하였다.

<표 2-41> 연도별 개최지역

2001	2002.5	2002.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산	경남	전남	부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대구	울산	전남

※ 개최시도는 시도 공예조합이사장 합의로 결정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송기욱

4.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4-1. 지방기술혁신사업 육성 지원

가. 개 요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R&D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자체주도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내용

(1) 지역R&D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남대학교(화순 전남대병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 지역 생물약분야의 국제적 R&D역량을 확립하고 감염질환 및 암 등의 궁극적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관련 기반 및 원천기술의 선진국 수준 확보를 위해 9년('05. 5~'14. 4)간 총 240억원을 투입하여 항미생물백신 개발, 암백신 개발 등 5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 연구 활동사항

① 1세부과제 : 원천기술 확보 및 경제성 있는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성 전염병 백신 개발, 세균전염병 예방백신개발, 질환모델 마우스 제작 및 치료백신 개발, 가축 전염병 백신 개발,

점막면역 백신개발, 인수공통 전염병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2세부과제 : 암 백신 치료법 및 영상법 확립과 난치성 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생산 기법 구축을 위해, 고형암/혈액암 백신 핵심기술 개발, 항암백신 광학영상 기술 개발, 자가 암치료 백신 개발, 고형암/혈액암 백신 영상 시험, 세포내 치료 기술 개발, 고형암/혈액암 백신의 산업화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③ 3세부과제 :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국가 필수 기초 백신의 상용화 및 제품화를 위해, 백신 제품화 과제도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균주 확보, 국가 필수 기초백신 제고기술 개발, 발효 및 정제 공정기술 개발, 2세대 DTaP 백신 제품화, 다가백신 연구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4세부과제 : 백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Formulation 및 Conjugation 기술 확립을 위해, 패치형 제제 조제, DDS를 이용한 제제조제, 발효조건 확립, Carrier Protein생산, Conjugation 조건 확립, 다가 항원 발원 고효율 벡터 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⑤ 5세부과제 : 유산균을 이용한 식품면역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국내 유산균 숙주 타당성 분석, 유산균 숙주/벡터 시스템 개발, 항원 발현 및 안정성 평가, 식품면역 백신 생산조건 확립, 백신 생산용 공정 개발, 식품면역백신 대량생산 및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2) 주요 성과 :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 점막 접종법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예정이며, 특정 유산균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항염증 효능을 규명한 맞춤형 유산균 치료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암세포를 찾아가 암 조직안에서 치료물질을 분비하는 살모넬라균을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 암세포를 제거하는 종양표적 박테리아 균주를 개발하였다. 특히 빛을 내는 발광유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과정을 분자영상 기술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패혈증 비브리오팀 유래 플라젤린 단백질을 이용한 점막면역 강화제를 개발하였으며, 감염질환, 항암 및 피임백신 등의 각종 유효 백신개발에 필요한 보조제로서 제공될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자체주도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목포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산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화 연구 및 천일염을 이용한 염장가공식품의 개발, 염생식물자원으로부터 건강기능성 산업소재자원 개발, 염생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미용소금 및 다이어트 상품 개발 등을 위해 5년(2007. 7~2012. 6)간 총 8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연구 활동사항

① 1세부과제 :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 규명 및 기초연구, 황산화 소금 치료용·약용 소금의 개발, 천일염 생산시설의 표준화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② 2세부과제 : 천일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염 개발을 위해, 전통소금 가공기술을 응용한 고급소금의 개발 및 기능성 저염소금의 개발, 초미세입자 소금의 개발 및 미용제품 개발, 숙성소금 제조조건 최적화 및 소금에 함유된 미생물 검사, 천일염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3세부과제 : 천일염을 이용한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천일염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발효식품의 개발, 염장발효식품으로부터 식품신소재의 개발, 동물실험에 의한 천일염을 이용한 염장

가공품(쿵쿵한 냄새가 없는 청국장과 숙성된장)의 노화억제효능 평가, 천일염을 이용하여 개발된 염장식품을 이용한 후식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4세부과제 : 통통마디 관련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해, 염생 식물 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미네랄 제품·효소함유 제품의 개발, 염생식물 자원 색소성분을 이용한 고품질 제품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⑤ 5세부과제 : 뷰티관련 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천일염과 염생식물을 활용한 미용소금 개발, 함초를 주 원료로 하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2) 성 과 : 천일염의 항고혈압 및 항당뇨 기능 분석을 통해 천일염의 우수성을 규명하였고, 항당뇨 기능성 약용식물을 활용한 항당뇨 소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유기물 첨가제에 의한 저염소금, 마늘 및 양파 등의 착향소금, 천일염 함유 미용 스킨케어 제품 등 다양한 가공염이외에 천일염을 함유한 냄새없는 청국장 등 전통발효식품도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의 시기별 및 지역별 성분 분석을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오수미

4-2.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가. 개 요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은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필요한 산

업화 연구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례야생화연구소**, **장흥버섯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1) **구례야생화연구소**는 야생화 유전정보 분석 및 첨단 생물공학 기술과 연계하여 천연 신소재·신물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BT산업화를 목적으로 5년('04. 10~'09. 9)간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08년 11월 연구소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야생화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류,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능 있는 야생화 유효성분, 원추리의 간보호 기능과 알코올 해독효능 상품 등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였으며, 둥글레를 이용한 기능성 장류, 야생화를 이용한 찬류 및 식단, 야생화 꽃차, 야생화를 이용한 천연미용비누와 목욕용품 등 지역농가 지원 연구개발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2) **장흥버섯연구소**는 지역특화 작목인 버섯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이 가지고 있는 약리성 기능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4년('05. 1~'09. 6)간 47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8년 11월 연구소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장흥표고의 생리활성 검증 및 스테이크 소스, 기능성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전통한과, 장흥표고를 소재로한 다양한 브랜드상품 개발 등 향토산업 육성, 생약초 및 표고균사배양미를 이용한 표고주, 상황 배양미를 이용한 건강식 제과, 표고 부산물을 이용한 버섯포, 생약초 함유 표고 조청, 표고버섯을 이용한 다이어트 음료 개발 등 신활력 사업 추진을 통해 버섯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3)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부품소재산업의 국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08. 7~'13. 6)간 256억 원을 투입하여 목포시 석현동 문화클러스터단지 내에 2010년 상반기

기 설립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 신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한 거점확보를 위한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시험생산사업을 하게 된다.

공동개발사업으로는 ①저투자형 실리콘 원료제조 기술개발, ②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형 다결정 실리콘 잉곳 생산 기술 개발, ③기업 현장애로 기술 및 미래형 실리콘 리본 제조기술 개발, ④국내 연구기술역량 집약형 핵심제조기술 확보, ⑤고효율 인버터 및 에너지변환/저장장치 개발, ⑥해상구조물 설계기술 및 부식방지·표면처리기술 개발 ⑦고효율 집광모듈 활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⑧노후 폐 태양전지/발전시스템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등이 있고

장비이용사업으로는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고가장비 공동활용, 태양광시스템 및 모듈 시험 평가 지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특성 평가/성능인증 지원 등이 있다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오수미

4-3.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가. 개 요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장비활용(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②연구개발(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③인력양성(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④창업지원(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⑤기술

개발 사업화(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⑥마케팅(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 한다.

우리 도내 센터는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지역혁신센터(동신대),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러지 연구센터(순천대),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목포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순천대),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전남대 여수) 등 5개의 지역혁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나. 추진상황

(1)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지역혁신센터(동신대 RIC)는 친환경 농식품에 관련된 천연물질 추출 및 생물자원 상품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10년('03. 7~'13. 2)간 113억원이 투입되며, 주요실적으로는 쌀국수 제조 방법, 오크통 등 특허출원 4건, 건강환, 배식초 음료, 천연조미료 등 개발기술 사업화 3건, 기술지도 82개 업체, 공동활용장비 구축 16종 등이 있다.

(2)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러지연구센터(순천대 RIC)는 10년('05. 3~'15. 2)간 103억원이 투입되며, 기존의 소재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원천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분자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인쇄기술개발(RFID Tag)」 등 8개 원천기술개발팀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인쇄전자 및 전자잉크의 사업화를 위해 순천산단내에 (주)파루에프이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Ag잉크, R2R 인쇄RF 로고 - 센서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인쇄공정 장비를 미국에 수출(40만불)하였다. 그리고 특허출원 9건, 기술지도 15개 업체 38건 등이 있다.

(3) 목포대 RIC(IT기반서남권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는 10년

(’06. 3~’16. 2)간 116억원이 투입되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와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조기구축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혁신역량 강화, 지역 내 산업관련 생산주체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선산업 지원센터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실적으로는 선박블록조립 원격모니터링 상용화, 선체블록 생산관리시스템개발 등 연구개발 8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3건,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용접품질 제어기술 등 개발기술 사업화 4건, 장비구축 10종 등을 통하여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기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4) 순천대 RIC(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 센터)는 희유 전략자원 중 국내 자원 자립화에 파급효과가 큰 Mo, Co, Ti, Ma, Ta, Nb, Ferro-alloy, REE, 관련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국내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10년(’08. 8~’18. 7)간 139억원이 투입되며, 희유자원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제조공정 및 원천기술개발, 제조공정 및 원천기술에 필요한 장비 구축, 희유자원 산업에 필요한 우수기술 인력양성, 희유자원 관련 산업체의 연구공간, 기술·경영지원,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실적으로는 포스코 냉연 산세공정용 산세액 제거기술, 공정단순화에 의한 Fe-Mo제조 공정 및 기술, 전기아연 도금 강판의 내식성 향상을 위한 희유금속 표면처리, 희토류 화합물 이용 광 파장 전환소재 등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3건, 진공아크용해법을 이용한 Ni기 초합금 제조 등 기술이전 3건, 기술지도 3개 업체 17건, 장비구축 9종 등이 있다.

(5) 전남대RIC(중화학 설비 안전진단센터)는 2009년 7월 신규 RIC 사업으로 선정되어 석유화학 및 제철, 조선의 안전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안전진단 산업의 안전진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10년 (’09. 8~

’19. 7)간 143억원이 투입되며, 2009년 운영조직 체계를 갖추 2010년 부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오수미

4-4.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가. 개요

연구인력, 설비, 정보 등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기술의 연구·개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는 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 추진상황

(1)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93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를 소요비용의 75%(일반과제는 1년간 1억원 한도, 선도과제는 2년간 4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09년에는 64개(일반과제 61, 선도과제 3) 사업에 총 3,73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R&D사업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전국 소재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2009년에는 신규로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년도 계속사업 8개 사업을 포함 총 14개사업에 2,16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3)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 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2009년에는 신규로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년도 계속사업 10개 사업을 포함 총 16개 사업에 1,15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4-5.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가. 사업개요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하는 사업이며, 교육체제 개편, 가족회사제 운영, 기업맞춤형 R&D 지원, 장비구축·공동활용,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04~'09) 사업은 순천대, 전남도립대가 선정되어 2009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09~'13) 산학협력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현황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은 5+2 광역경제권별로 선정하였으며, 호남권에서는 4개 대학, 2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었다. 그 중 우리도는 순천대와 목포과학대, 순천제일대가 선정되었다.

<표 2-42>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대학교	사업명	사업단장	사업비	비고
계	3개 사업		189	
순천대학교	전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형 산학협력 중심대학 구축	김병일	116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형 조선전문 인력양성	김성식	26	
순천제일대학	광양만권 산업체 수요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박노춘	47	

지금까지 산학협력체결 453개 업체, 기술개발 99건, 기술지도 814회, 산업체 주문형 학과 운영 등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김준철

4-6. 전남기술이전센터 운영

가. 사업개요

도 소속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고 지역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경부와 도의 Matching Fund로 2008년 4월부터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전남기술이전센터에서는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지역내외 기술거래 기관과의 기술거래사업 망 구축 활용 등으로 기업체에 기술 및 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자금, 사업화 자금 연계,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기업체에 맞춤형 기술이전 및 사후 지속적인 기술 사업화 성공 지원으로 우량기업을 창출하고, 기타 중소기업간 M&A, 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행 행정처리 및 기술공급자 및 기술 수요자간 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 추진상황

대학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34개 기업 58건/56억, 기술사업화 자금 17개 기업 113억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기술이전 실적 및 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하여 전국 14개 기술이전 센터 연차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경부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남·광주 기술이전센터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김준철

4-7.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지원

가. 사업개요

특허정보, 브랜드, 사업화 컨설턴트 3명이 상주하여 기술개발에서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제시, 중복투자 방지, 특허 분쟁예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과 우리 도가 각각 2억5천씩 총 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목포상공회의소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전문가 POOL 활용 기술개발 방향 제시, 특허분쟁 예방 등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기술에 대한 간략 특허정보검색 또는

전문기관 선행 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PM(특허지도), 스타기업 선정·육성,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43>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계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	특허비용 지원	맞춤형 PM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스타기업 선정
2008	400	432	248	66	90	10	12	3	3
2009	500	432	667	78	90	15	22	4	5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김준철

4-8. 중소기업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시·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 주도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보조하고 중소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여수시 등 5개 시·군(5개 과제)을 선정, 48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8개 기술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연 78억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5개 과제 내외를 선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소득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표 2-44> 중소기업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연구 개발 분야				
		계	신소재	생물	IT·전자	기계
계	1,240	13	4	6	1	2
2007	300	3	1	2	-	-
2008	460	5	2	3	-	-
2009	480	5	1	1	1	2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김준철

4-9.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겪고 있는 기술상의 애로와 문제점 중 단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정보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우리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보조하고 중소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여수시 등 7개 시군의 14개 업체에 총 사업비 35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었다.

199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81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정개선 97, 기술개발 128, 품질관리 69업체, 기타 애로기술 해결 44업체 등 338개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표 2-45>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지 도 내 용					
		계	공 개	정 선	기 술 개 발	품 질 관 리	정 보 자 동 화
계	811	338	97	128	69	22	22
2001이전	276	126	45	43	16	13	9
2002	70	28	4	10	10	4	
2003	75	30	5	13	9	3	
2004	75	30	6	12	10	2	
2005	75	30	7	13	9		1
2006	68	27	7	12	5		3
2007	75	28	6	14	5		3
2008	62	25	13	4	4		4
2009	35	14	4	7	1		2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산학협력담당 주순선
담당자 김석훈

4-10. 고흥 「나로우주센터」 확장 지속 추진

가. 추진배경

우주개발은 통신, 방송, 환경, 국방, 국토관리 등 경제·사회·과학기술·산업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15)에 따라 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 자체 발사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우주센터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우리 도를 비롯한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평가하여 「우주센터」 건설에 필요한 요건인 안전성, 발사각도(15°), 부지확보 용이성(국·공유지 70%), 기상, 지질 등 제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유치노력에 힘입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번지를 「우주센터」 건설 대상지역으로 2001. 1. 30일 최종 확정하였다.

그동안 첨단과학산업이 빈약하던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관련 대규모 국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고흥 「우주센터」는 국내 최초 위성 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국제스페이스클럽에 당당하게 가입하게 되었다.

나. 고흥 「나로우주센터」 건설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9년간('00~'09) 총 사업비 3,125억원(센터 건설 2,895억원, 우주과학관 2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 8.25일 우리 기술로 만든 과학위성 2호를 최초로 발사하였다.

주요시설로는 발사체인 로켓을 조립 시험하는 조립시험시설, 발사대, 발사체를 자동 추적하는 광학 추적레이더동, 발사통제동, 추진기관시험동 등이 있다

또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교육장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과학관」이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2009년 4월에 개관하였다.

다. 추진상황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부터 부지 5,065천㎡(약150만평)의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9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2월 발사대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09. 6. 11일 우주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2009. 8. 25일 나로호(1차)를 발사했으나 페어링 덮개 개폐장치 이상으로 발사는 성공했음에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또, 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우주과학관」 기본시설을 마무리 짓고 추가로 2009. 7~2010. 11월까지 4D 영상관을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2010년 6월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2차 발사를 하게 되며 1차 실패를 교훈삼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에는 길이 50m 200톤급 KSLV-II를 순수 국내기술력으로 개발하여 발사하게 되며 우주센터 발사대 및 지상발사시스템이 증설 또는 확장된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과학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최강석

4-11. 고흥 「항공센터」 확장 지속 추진

가. 추진배경

항공센터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비행선, 유무인 비행기, 헬기 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종합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가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국가 기간시설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리 도를 비롯한 충북 청주, 제주도 등

3개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평가한 결과 고흥지역이 시험공역에서 자유롭고 시계가 양호한 최적지로 결론내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02. 8.16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나. 「항공센터」 추진상황

고흥에 「항공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고흥만 간척지 155천㎡(47천평)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용도변경 받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무상제공하고 센터와 활주로 건립부지, 전기통신,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항공센터」는 1단계사업으로 2002~2006년까지 7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0m급 비행선 시험동, 헬기착륙장치 낙하시험동, 활주로 0.7km, 주기장, 무인기시험동, 나로호 2단 엔진시험동을 완비하고 KHP 성능시험을 비롯한 비행선 개발, 각종 무인기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0~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고 주요시설로는 2.4km 활주로, 비행시험연구동, 중형항공기 비행시설, 대형아음속풍동, 초음속풍동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2010년 이후에 추진될 2단계 사업으로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의 “항공산업 지역특화방안”에 고흥을 성능시험 지역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부지 826천㎡(25만평)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흥만간척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부지사용이 결정되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과학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김범석

4-12.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지속추진

가. 추진배경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목포 삼진·산정산단, 영암 대불·삼호산단, 해남 화원산단 등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5개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고가 연구장비를 한곳에 집적화하여 고도화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술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내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8~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과학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이 센터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에 공동 연구기능이 가능하도록 230억원을 투입하여 대불산단內 19,835㎡(6,000평)부지에 12,181㎡(3,690평)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집적화 및 지원에 7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서남권 5개 산단에 입주해 있는 428개 업체(대불산단 316, 삼호산단 2, 삼진산단 37, 산정산단 72, 화원산단 1)와 목포대 중형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중소조선연구원 서해분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 등 14개 연구기관 및 목포대 등 인근 9개 대학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다. 추진상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2008. 1. 4일 선정되었고 한국연구재단과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간에 2008년 6월 협약을 체결하였다.

1단계 사업종료 이후 센터자립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2009.11.30일 완료하였고 우리지역 특화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소재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2억원을 2009.12.22일 지원했다.

과학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2,876백만원에 구입하고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9. 10.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09. 11. 20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완료목표로 실시 설계중이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201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0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실험동은 2010년 11월에 먼저 완공하게 되며 본관동은 2012년 12월에 완공하게 된다.

이 센터가 준공되면 산·학·연이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기초원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1단계사업 종료 이후 자립화 방안을 찾기 위해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과학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고이녀

4-13.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연과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테마과학관을 건립하여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과학문화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 추진내용

과학관 건립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 73억원(국비 23, 도비 9, 시·군비 41)이 투입되어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순천만 천문대 3개 과학관이 개관되었고,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2개소는 건립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신규 과학관 건립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표 2-46> 지방테마과학관 현황

※ 관리자는 해당 시장·군수임

과학관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백만원)				주 요 기 능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곡성 섬진강 천문대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청소년야영장 지구내	'04~ '07	1,403	500	150	753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청소년 및 지역민 등에게 천체와 우주에 대한 산교육장 제공	'08 개관
정남진 천문 과학관	장흥군·읍 평화리 산 7	'04~ '06	3,510	800	450	2,26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6 개관
순천만 천문대	순천시 대대동 162-7 자연생태 공원내	'05~ '08	2,400	1,000	360	1,04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8 개관
고흥 우주천문 과학관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507-2	'07~ '10	6,700	2,000	-	4,700	· 우주 및 천문과학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10 개관 예정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목포시 산정동 1454(삼학도 근린공원내)	'07~ '11	11,700	1,000	-	10,700	· 해양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 해양 과학체험을 통한 여가 공간 제공	'11 개관 예정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과학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고이녀

4-14. 융합기술 육성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차세대 기술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 또는 이들

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신산업 및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술의 조기 선점이 필수적임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정부의 융합기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계획 기간('09~'13) 중 융합기술 개발분야의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에 약 5조 8,9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나. 추진상황

정부의 융합기술 육성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08. 8월 과학기술과에 융합기술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9년 3월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정책과 전남의 산업환경을 살펴보고, 기존 전략산업인 조선산업과 소재산업, 생물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맥을 잇는 방향으로 융·복합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1차 자원의 활용·가공산업(식품, 한방의료 등), 전남의 전통적인 주력 기간산업(조선, 생물산업 등)의 영역과 IT, 신소재,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물류, 문화·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기존산업 및 신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전남의 주력 산업을 발판으로 바이오 에너지, 저탄소 그린산업 등 지속가능 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추진한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9 ~ 2015년까지 6년간 국비 60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우수한 첨단해양기술(MT)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IT)의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신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20건의 융합기술 발굴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물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프로젝트와 연계 또는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기술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김창오

4-15. IT융합산업 기반구축

가. 추진배경

20세기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존 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며, 다양한 사회문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IT 기술이 최근 들어 BT, NT 등 신기술이나, 기존산업과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신규 시장들을 창출하고 있어 IT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4대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과 IT융합을 통해서 관련산업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지난 2004년부터 정부 등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총 7건 706억원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기업체 투자유치, 산업체 지원, 특허출원, 인력양성 등 IT융합기술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전남도의 IT융합산업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대학 IT연구센터」와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등 공모사업에서 목포대의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와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가 각각 선정되어 전남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첨단화 지원과 산학연 고급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2-47> IT융합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연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기술개발 실적(건)
7건		706		75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 구축·운영	'04~'09	316	동신대	14
u-농업 IT응용연구센터 지원	'05~'11	41	순천대	13
친환경 어류양식연구센터 지원	'06~'12	41	전남대 (여수캠퍼스)	11
광양만권 u-IT연구소 구축 운영	'06~'10	140	(재)광양만권 u-IT연구소	16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 지원	'08~'11	27	목포대	13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	'09~'12	35	목포대	-
한·러 MT-IT 융합기술센터 운영지원	'09~'15	106	광주과학 기술원	8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황기연, 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고병철

5. 환경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관리

5-1. 환경산업 육성

가.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구축

환경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전제되는 경우 수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우리 도는 조선, 화학, 생물, 철강 등 산업을 각 권역별로 특화하여 육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산업별 융복합을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를 기해 이러한 특화산업과 연계, 체계적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발표에 따라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신성장동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치는 환경산업 입지여건이 좋은 강진군 성전면으로 148만 m^2 의 면적에 1,5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말 현재 11개 환경산업관련 기관 및 업체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설비 및 환경측정기기 관련 기업과 태양광 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관련 업체의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첨단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기능 및 첨단 환경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을 하게 될 환경

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우리 도의 강진 성전산단에 유치하여 2009년 9월 건립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12월 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환경산업기술지원센터 개요

- 위 치 :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내
- 기 간 : 2009~2012(4년간)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145, 도비 145, 군비 60)
 - 내 역 - 건축비 200, 실험장비 80, 설계비 10, 부지 60억원
- 규 모 : 대지 33천㎡(60억원), 연면적 17천㎡(290억원)

앞으로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가 건립되면 약 600여명의 고용창출 및 350억원의 부가가치와 5년간 약 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연구단지, 실증센터, 환경기술 교류협력센터 등의 연계된 환경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전남은 첨단 환경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환경산업담당 김인수,
담당자 박진상

5-2. 에너지 자원별 수급현황

가. 전 력

2009년 말 현재 전라남도의 시설용량은 8,812MW로서 전국 시설용량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시설별 전력 시설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48> 도내 전력 발전 공급시설 현황

(2009년말 기준)

구 분	발전소수(발전기)		시설용량(MW)		비 고
	전 국	전 남	전 국	전 남	
계	1,979(2,580)	519(580)	73,470	8,812	전국의 11.9%
수 력	77(192)	8(19)	5,512	36	
원 자 력	4(20)	1(6)	17,716	5,900	영광(1~6호기)
화력 등	1,898(2,368)	510(555)	50,242	2,876	

※ 원자력 발전소(20기) : 고리(부산) 4, 울진(경북) 6, 월성(경북) 4, 영광(전남) 6

전라남도의 2009년말 기준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1,966천MWh이며, 연간 23,589천MWh이다. 용도별 사용량은 산업용 69.6%, 가정용 8.5%, 공공용 2.8%, 서비스용 19.1%이다. 연도별·용도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9> 연도별·용도별 전력사용량 현황

(단위 : MWh)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19,500,753	20,239,522	21,868,193	23,589,470
산 업 용	13,306,991	13,827,892	15,056,718	16,424,023
가 정 용	1,855,718	1,889,888	1,962,070	2,018,101
공 공 용	539,230	559,380	607,616	655,381
서비스용	3,798,814	3,962,362	4,241,789	4,491,965



경제과학기술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배용길

나. 가 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스사용가

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 천연가스(LNG)로 구분된다.

LPG는 LNG보다 열량이 높아 취사용, 수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가격이 LNG보다 비싸고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도시지역에서는 LPG에서 LNG로 전환되는 실정에 있다.

한편, 2009년 말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도시가스 사용은 29.8%, 231천세대이며, LPG사용은 66.7%, 516천세대로 가스보급률은 96.6%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가스연료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0> 연도별 가스연료 사용현황

구 분	전체세대	사용세대	보급률 (%)	소 비 실 태		
				사 용 량	증감률(%)	
2006	758,144	도시가스	191,302	25.2	272,970천m ³	1.2
		L P G	508,458	67.0	140,145톤	프로판
2007	765,729	도시가스	210,714	27.5	310,017천m ³	1.2
		L P G	516,163	67.4	120,031톤	프로판
2008	769,729	도시가스	220,529	28.8	390,289천m ³	1.2
		L P G	516,163	67.4	129,099톤	프로판
2009	773,087	도시가스	231,022	29.8	374,612천m ³	△0.4
		L P G	516,613	66.7	128,078톤	프로판

전라남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4개사이며, 공급지역은 8개소이고, 공급(분)관 길이는 675km이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1>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

(2009년말 기준)

공급 회사명	주 소	공 급 지 역	배관길이(km)
계	4개 회사	8개소	675
목포도시가스	목포시 석현동 952-2	목포, 영암, 무안	215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만흥동 1454-10	여 수	133
전남도시가스	순천시 조례동 1603-9	순천, 광양	244
해양도시가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0-3	나주, 화순	83

전라남도의 가스취급 업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4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소 245개소, 가스저장소 162개소, LPG충전소 158개소, 집단공급시설 121개소, 가스판매소 408개소 등 총 1,098개소이며 고압가스 특정사용 신고업체 등은 326개소이다.

가스취급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2> 가스취급업소 현황

(2009년말 기준)

계	가 스 취 급 업 소 현 황							특정사용 업체 등
	소 계	도 시 가 스	고압가스 제조업소	가 스 저장소	LPG 충전소	집단공급 시 설	가 스 판매소	
1,424	1,098	4	245	162	158	121	408	326

다. 석유제품

2009년도 전라남도의 석유제품 소비량(납사 등 제외)은 22,180천 배럴로 전국 소비량 289,877천배럴의 7.6% 수준이며, 2009년도 석유 소비량은 2008년 대비 3.1% 감소하였다. 2009년도 석유류 소비량은 다음과 같다.

<표 2-53> 2009년도 석유류 소비량 현황

(단위 : 천배럴)

구 분	계	휘 발 유	등 유	경 유	방카 C유
2008년(B)	22,891	2,326	1,759	11,247	7,559
2009년(A)	22,180	2,439	1,919	10,552	7,270
A/B(%)	△3.1	4.8	9.0	△6.1	△3.8

전라남도 내 석유판매업소는 1,524개소이며, 이 중 일반대리점은 59개소, 주유소 980개소, 일반판매소 등이 485개소로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보다 일반판매소 등이 29개소 감소하였다. 연도별 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4> 연도별 석유판매업소 현황

구 분	계	일반 대리점	주 유 소	일반 판매소 등
2008	1,553	49	974	502
2009	1,524	59	980	485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박정현

라. 석 탄

석탄은 국내 유일한 부존자원으로서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래 서민연료로 대중화되어 가정경제와 산림녹화 등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청정연료인 가스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1987년부터 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연탄소비량은 다음과 같다.

<표 2-55> 연도별 연탄소비량

(단위 : 천톤,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비량(천톤)	32	44	54	51	49
전년대비(%)	△3.0	27	22.7	△5.6	△3.9

전라남도의 연탄사용 세대는 '93년 112천세대로 전체 세대의 25%, 2004년말 14천세대로 전체 741천세대 중 1.8%, 2008년말 12천세대로 전체 773천세대 중 1.5%만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가스사용가구의 증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연탄사용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연탄사용 세대의 감소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 2-56> 연도별 연탄사용세대 감소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사 용 세 대	14,048	13,840	13,578	13,394	12,332
전년대비 감소율(%)	△5.3	△1.5	△1.9	△1.4	△7.9

2008년말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연탄공급업체는 3개소로 월평균 112만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저탄능력은 31천톤이다. 연탄판매량 1호탄 기준으로 개당 203.0원을 제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송량에 대해서도 개당 24.75원을 보조하여 연탄가격 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박희

5-3. 에너지자원 관리대책 추진

가. 천연가스 공급

가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

료인 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1995년~2000년까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지역에 3,082억원을 투자하여 주배관 208.4km 공사와 공급관리소 11개소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목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순천, 광양, 여수지역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총 공사비 5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2월부터 화순지역에 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 9월부터 나주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 하였고, 영암 대불산단의 가스 공급 배관공사를 2008. 2월에 완료하였으며,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장성, 해남, 영광, 담양, 곡성지역을 공급하고 2014년에는 구례, 함평군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도내 공급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지속 추진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강화로 가스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기에 피해보상을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1년 11월 1부터 실시하고 있다.

LP가스 판매업자는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소비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한 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자를 선택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보험약관에 따라 인명피해일 경우에는 8천만원까지, 재산피해일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피해보상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이중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박정현

다.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추진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을 보면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연간 수입액은 1,415억불로 총 수입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4위 원유수입국, 에너지소비 세계 11위로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강도 높은 범 도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여 고유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에너지소비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10%절약 범 도민 실천운동 추진 및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 실시, 반상회와 시민단체 에너지절약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관용 경차구입, 백열전구 퇴출, 엘리베이터 4층이상 격층 운행, 냉·난방 온도 준수 및 승용차 선택 요일제 실시 등을 적극 실천하였다.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신에너지담당 홍정희,
담당자 남정규

라.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등 청정에너지와 환경시설에서 버려지는 소각로 폐열 이용시설 등의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태양

광발전 분야에서는 2009년 전국 상업발전량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 등으로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실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통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50개소 189억원을 투자하여 도립도서관, 목포·여수시청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장성 농어촌뉴타운 복지회관 지열시설 등을 설치하고, 목포 등 17개시·군에 LED신호등 보급, 목포·순천·화순·영광군 내 사회복지시설에 유류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온수 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류비 부담 없이 마음놓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 전라남도 청사가 이전한 남악신도시에 대한 생태도시화 및 입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남악신도시 Sun-City」 사업의 일환으로 4억 6천만원을 투입 현대 I-Park에 581세대 5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07년도에는 12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대우 푸르지오의 입주민들에게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혜택이 돌아갔으며,

'08년부터 2년간 한국아델리움을 비롯한 5개 공동주택에 32억원을 투자하여 2,944세대 546kW를 설치하였으며 일반주택도 3년간 대비 5억원을 확보하여 362세대(kW당 5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광양시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과 순천시 낙안면 금산 녹색농촌마을 태양열 온수시설 등 33개 사업에 11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분야 시설투자 사업에도 공장 연돌폐열회수 설비를 비롯하여 LED 교통신호시스템 교체 등 17개사업에 7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연구사업에도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가, 도, 시·군간에 풍력·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양해각서(MOU)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468개의 태양광 발전소, 3개의 매립지가스 발전, 7개 소수력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태양열 난방 시설, 폐열·지열 등을 이용한 시설원예 가온시설, 재래시장(상설)의 태양광발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에너지 발굴과 함께 선진에너지 기반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성공사업으로 평가받은 남악신도시 Sun-City 조성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건립 및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수변지역·공원 등을 활용한 쉼라파크 조성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신에너지담당 홍정희,
담당자 남정규

마. 도서 전기공급 추진

벽지도서 주민들의 소외감해소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9년까지 50호 이상 도서의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10호이상 도서와 해월철탑으로 한전계통 전력공급이 가능한 5호 이상 30개 도서를 대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완료하였고, 10호미만 33개 소도서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 자체 발전기,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로 연차적으로 그린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전기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7> 도서지역 전기공급 현황

(2009년말 기준)

구분	총 유인도서		전기공급 완료		미 전기공급		비 고
	도서수	호 수	도서수	호 수	도서수	호 수	
계	277	83,544	244	83,440	33	104	-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공급 : 8도서 - 자가발전, 태양광공급 : 8도서 - 자가발전공급 : 15도서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배용길

5-4. 지하자원 개발 현황

가. 광업현황

2009년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12개 광종 450개의 광업권이 설정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가행하고 있는 광업권은 전체 광업권의 53%에 해당하는 239개 광구로 금속광이 21개 광구, 비금속광이 201개 광구, 석탄광이 17개 광구이다.

나. 광물 생산현황

광산물의 생산실적은 금 209kg, 은 1,230kg, 납석 237천톤, 고령토 81천톤, 석회석 790천톤, 규석 264천톤, 장석 55천톤, 석탄 240천톤으로 90년대 이후 매장량 감소와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인한 신규 광산개발이 어려워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도 광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8> 2009년도 광업현황

구 분	등록광구	가행광구	광 산 수	종업원수
계	450	239	46	813
금 속 광	59	21	2	45
비금속광	374	201	43	208
석 탄 광	17	17	1	560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장 임채영, 자원개발담당 범진선,
담당자 박희

6.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구축

6-1. 신산업 발굴 육성기반 마련

전남도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고속도로, 철도 등의 SOC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 분야 등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2006년 9월 전략산업과를 신설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혁신기관 연계하여 우리도의 경제과학분야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등 미래 첨단 분야의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2002~2007년까지 국비 1,264억 원을 포함한 2,315억 원을 투자하여 식품산업연구센터 및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등 특화센터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946억 원을 포함한 총 1,574억 원을 투자해 2단계 진흥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정부 들어 추진하게 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우리 도와 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광역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선도산업으로 2009~2012년까지 국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게 된다.

6-2.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가. 조성배경 및 기능

테크노파크는 대학·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창업보육·교육훈련·기업지원서비스 기능 및 시험생산 기능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단지를 말한다.

낙후된 산업여건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우리도에서는 2003년도에 『테크노파크 신규 사업 시행자 지정계획』을 수립 지경부에 건의하여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게 되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산업 혁신주체간의 연계와 거점기능을 수행하며, 기존사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촉진과 지식기반 신산업을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육성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순천대, 목포대, 여수대, 목포해양대, 동신대, 대불대,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여수상공 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포스코(광양제철소), 현대삼호중공업 등 총 15개 기관단체가 출연기관으로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추가로 조선내화, GS칼텍스, 광주은행 및 테크노파크 스타기업인 사카팬코리아, 썬테크발전기, 정림산업, KS야나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4대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등 미래 첨단분야 및 특화 가능성이 높은 신금속, 정밀화학, 정보·전자소재, 기계부품 등 2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단지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천시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부지내에 부지 33천㎡, 연면적 12천㎡ 규모로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완공 및 2008년 3월 25일 준공식을 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역혁신체계 통합지침에 따라, 전남신소재산업진흥재단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 체제(2단, 2센터, 1실)로 2007년부터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을 축으로 창업보육, 연구개발, 장비활용, 교육훈련, 정보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사업 등 6대 목적사업과 기술혁신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조성사업(2003. 12. 1~2008. 6. 30)을 통해 입주기업을 포함한 73개사에 창업보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 중대형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고분자 용·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총 86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176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였다.

장비활용사업으로 총 673건, 74개 기업이 장비 활용을 통해 직접적인 개발비를 지원받는 효과를 거두었고, 2007년 5월부터는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초공용실험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총 1,367건, 10개사의 기업이 활용하여 사업화 기술개발의 가속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에는 조선·신소재 인력양성사업으로 총 147억원(2008~2012)을 확보하여 지역 내 성과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총 35개 과정, 527시간)하고 참여인원 DB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시제품 시험생산 지원을 위해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초공용실험실 및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가속화를 통한 매출 증대 환경을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위한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로 지역기업에 양질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부터 수행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사카팬코리아(주), 썬테크발전기, 정림산

업, KS야나세 등 4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였고 2개의 예비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통합관리 및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술혁신 지원기관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테크협의회 외 39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애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산업정책 실무자 협의회 외 4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혁신 아이템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재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2008. 6. 1~2012. 12. 31)을 추진 중이다. 2단계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을 목표로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DB구축, 창업후 보육사업,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기술경영통합지원,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TP 1단계 목적사업인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교육훈련, 장비활용, 시험생산 등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2단계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생물산업진흥재단, 대학연구개발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이 지역의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스타기업 육성, 자회사 설립, 테크노캐피털 조성과 함께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산업 창출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9 ~2012년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LED, 자동차 4개 분야의 R&D, 비R&D분야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6-3.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가. 설치 및 기능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집적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0월 발족하였다.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비 발전계획 수립,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평가관리 업무 등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한다.

나. 운영상황

전남전략산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산업기술지도(RTRM)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의 발굴 및 연구기획 등의 주요 기능을 통해 전남도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의 독창적인 모델인 JICS(전략산업별 클러스터)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산·학·연·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정립하고, 산업별 혁신클러스터와 연계방안 도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로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혁신기관에 홍보한 결과 과제 신청접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수요

조사 분석 자료 및 산업기술지도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시키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에 대한 1차 지역평가 및 중간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1단계에서 기획한 기획사업의 실현화를 위해 2단계(2008~2012)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과 전략산업 집적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남의 부족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확충코자 핵심산업 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집중지원 및 R&D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산업별 클러스터(JICS)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미니클러스터를 더욱 강화, 활성화시켜 지역의 현안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별도의 정보 확산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1단계에서 조사된 지역의 전략산업별 실태확인을 토대로 산업집적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클러스터화를 촉진에 매진할 것이다.

지자체 R&D평가 시스템 구축과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병행하여 중앙 및 지역 R&D 과제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혁신기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사업기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정책에 따른 지역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호남광역경제권 체제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산업간 연계협

력사업의 발굴과 지역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도산업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과학국 전략산업과장 정순주, 신산업담당 윤순선,
담당자 김미순, 조재웅, 박혜연, 최민준

6-4. 생물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 기초 소재가 풍부한 전남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추진상황

1999년 8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지역은 생물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기관 : 삼성경제연구원)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산업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산업자원부의 “권역별 지역산업발전계획” 타당성 조사(산업연구원)를 근거로 2002년에는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나주에는 식품산업을 선도할 ‘식품산업연구센터’를, 화순에는 생물의약산업을 일으킬 ‘생물의약연구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식품, 의약, 나노바이오, 생물방제, 천연자원연구원, 독감백신 기반구축 등 생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총 1,90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각종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활발한 협력사업들을 펼쳐가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물식품 및 의약분야를 선도하고 기업지원을 전담하게 될 식품산업연구센터(나주)와 생물의약연구센터(화순)가 2006년 말 완공되어 20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성장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독감 대유행(Pandemic)에 대비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독감백신의 국내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독감백신 원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2006년 12월 기공식 후 2008년 12월 완공하여, 계절독감백신 330만도즈, 신종플루백신 3,200만도즈를 생산함으로써 연도말 대유행한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의 최대 가동 예상 시점인 2013년에는 연 2,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0~500 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나노산업'과 '생물농업'의 거점이 될 '나노생물 소재 실용화 사업과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첨단 나노생물 융합산업과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갈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올해까지 총 359억원이 투자 되었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장성에 구축하는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산업화하고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곡성의 '생물방제센터 구축'사업은 천적관련 신기술 개발, 천적생산, 유용생물 종자은행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연구개발(미생물제제, 농약)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전남에 풍부한 지역 특산자원의 기능성 연구분석 및 제품화·산업화를 선도해 나갈 전문기관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하여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관련기업유치를 추진하게 된다.

<표 2-59> 생물산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규모	주요기능
계	7개사업		1,905		
식품산업 연구센터건립운영	나주 지방산단	'02~'07	443	·부지 33천㎡ ·건물 9.6천㎡	생물식품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의약품 연구센터건립운영	화순 지방산단	'02~'07	252	·부지 26천㎡ ·건물 5.3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화순 지방산단	'05~'08	571	·부지 66천㎡ ·건물 17천㎡	독감백신 생산 (연 20백만 도스 이상)
지역임상시험센터 건립운영	전남대 병원	'05~'10	104	·건물 1천㎡	국제 임상시험수행
나노바이오연구센 터 건립 운영	장성 남면	'06~'09	180	·부지 17천㎡ ·건물 5천㎡	나노생물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방제센터	곡성 입면	'06~'09	179	·부지 33천㎡ ·건물 10천㎡	생물방제 연구개발 천적 생산
천연자원연구원	장흥 안양	'07~'10	176	·부지 17천㎡ ·건물 4천㎡	지역특산자원탐색 산업화 지원

다. 앞으로 추진방향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확립과 실험장비 등 기술개발 시설을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그 결과를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의 생물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권역별로(나주, 화순, 장성, 곡성, 장흥)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집약된 생물산업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독특한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산업화하여 앞으로 1차산업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유치 및 기능성식품개발 등을 통해 전남이 바이오산업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전략산업과장 정순주,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담당자 심재명, 이계명, 정명삼, 김명식

6-5. 조선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타 지역 보다 유리한 기후, 낮은 파도와 깊은 바다, 천연의 방파제 등 천혜의 조선소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연구개발기능의 기반이 확보된 전남에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추진상황

2003. 7월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 9~2004. 3월까지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서 전남의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5. 1월 “신전남발전비전 10대 핵심산업 육성계획”에 조선산업이 포함되었다.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선박블록기업, 의장기업 등 200여개 조선기자재기업이 집적화되었으며, 세계 5위의 건조능력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 외 대한조선(해남)·신안중공업(신안)·고려중공업(진도)·오리엔트조선(울촌)·TKS(영광) 등 5개의 중형조선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전남도에서는 신규 유치된 조선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 교량하중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불산단을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에 맞게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조선소 진입로 개설, 전력시설 확충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남TP 기업지원(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목포대 중형조선산업 RIC사업, 대불단지 클러스터사업 등을 통해 기업지원 및 R&D를 지원하였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기존 건설 중인 중형조선단지 외 조선기자재 단지, 조선타운 등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도내 조선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형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플랜트, 해양레저장비 등으로의 다변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고 신 해양시대에 부응한 해양레저산업 발전의 혁신거점을 확보하고자 '동북아 요트시티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전략산업과장 정순주, 조선산업담당 박화현,
담당자 최정운, 강하춘, 윤금현, 백계승

6-6. 신소재산업 육성

신소재 산업은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로서 기술혁신과 신규 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과 연계한 우리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향후 신소재산업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육성배경

신소재 산업은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산업이자 광양제철, 여수산단 등 우리도의 산업적 기반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소재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지대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조립 생산능력의 평준화로 이제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불어 2005년 이후 원자재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철강, 에너지, 전자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며 제품 중 함유량이 소량임에도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희소금속 소재산업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정부가 희소금속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을 가공해 소재화 산업을 육성하며 희소금속 재활용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여, 희소금속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인구증가를 도정의 최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소재산업

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신소재는 크게 신금속, 파인세라믹, 고분자 용·복합소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도는 3대 신소재별 특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소재별로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결하고, 계속해서 지역산업전략진흥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도를 소재산업의 으뜸 道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첫째, 신금속 분야이다. 신금속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마그네슘 등 기능성 경량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하였다.

그 동안 순천시 해룡면 울촌 제 I 지방산단에 부지 9,918㎡, 건물 3,967㎡ 규모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05. 6)하였고. 2006년 6월에는 1,322㎡ 규모의 제2공장동을 완공하였으며, POSCO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신사업인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시 해룡산단에 2007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시설인 시험생산동을 2008년 10월에 준공하여 마그네슘 전문기업이 입주하여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금속중 고부가가치 차세대 경량소재인 마그네슘 분야는 순천시 해룡산단 및 보성산단을 마그네슘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육성한다는 비전하에 마그네슘 제련공장, 성

형, 표면처리, 리사이클링 업체 유치를 위한 개별기업 방문 및 설명회 개최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희소금속을 육성 2008년 순천대학교 '희유자원 실용화센터'가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포스코가 뉴칼레도니와 SMSP사와 합작으로 광양제철소내에 SNNC 페로니켈공장을 2008. 11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원의 무기화로 인한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희소금속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파인세라믹 분야이다. 파인세라믹이란 전통 세라믹제품에 비해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제된 원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우리 도에서는 구조세라믹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다.

구조세라믹은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계, 정밀기계용 부품소재 및 모든 고온내열, 내마모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로서 그동안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서남권 세라믹협의회에서 수차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한 논의 끝에 지역현실에 걸맞고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서남권을 구조세라믹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목포시 연산동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Hot Press 등 9종의 장비를 제작하는 등 비산화물계 구조세라믹 부품소재 Hub 구축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는 서남권 세라믹분야의 풍부한 산업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미래 첨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번째 고분자 용·복합소재 산업은 전남 테크노파크사업단을 통해 지역내의 고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기반을 토대로 고성장의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 공용장비구축 수요조사, 장비구축 타당성 검토, 장비설계 등을 추진하여 고분자 용복·합소재 산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3대 신소재별 특화유망분야에 대하여 지역산업전략진흥사업 2단계사업을 2008년부터 계획하여 2012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사업추진 지역 외에 신금속 분야의 보성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고분자분야는 고흥 지역에 고분자 용·복합소재 분야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3대 신소재별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본격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과학국 전략산업과장 정순주, 신소재담당 정한권,
담당자 민일기, 고영량, 김규종